

김포·안성 놓고 부적합 잇단 공방

조계종 제120회 중앙총회에 상정돼 종단내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던 중앙승가대학 이전계획이 마침내 중앙승가대학 이사회가 검토 및 최종 결정후 총회에서 의결토록 함에 따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논의되는 등 표류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이전계획 다시 원점

중앙승가대학이 당면한 과제는 정규대 승격이다. 이는 학사이전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김포 또는 안성부지의 논란은 '정규대 승격'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백년대계인 교육불사를 여법하게 이뤄내기 위한 공방인 셈이다. 중앙승가대학 이전 공방은 제118회 총회에서 '중앙승가대학의 정상화와 이전불사의 범종단적 추진을 통한 성공적 회향'을 목적으로 구성된 중앙승가대학 대책위원회가 학교이전과 관련한 제반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대두됐다.

대책위는 총회에서 김포부지의 문제점으로 총면적 5만3천여평 중 가용건립면적은 42%에 불과, 부지협소를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금정사 상공에서 선회해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소음공해, 산림훼손, 중국과의 교역에 따른 김포 주변지역의 개발로 빛어지는 유해요소의 산재를 난점으로 제기하고 새로운 부지로 안성 건화목장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앙승가대학 학생 동문 교수 측은 80여억원에 달하는 안성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확보의 문제, 불교계의 대정부 공신력 등을 들어 안성부지의 적합성에

부지협소·항공기소음 심각 김포 추가 매입비용 80억원 안성

교육 백년대계 위해 종단·학교 신중 결론을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김포부지가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는데 2년6개월 소요된 점을 미뤄 안성부지로 변경할 경우 장애가 없더라도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회와 동문 교수측은 김포부지 이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교이전의 연기나 변경이 정규대 승격과 이전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부지에 대한 공방이 일고있는 가운데 중앙승가대학 학생 동문 교수측은 지

난달 26일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암동 현 캠퍼스에서 정규대 승격을 준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승가대가 3월16일 교육부 장관령으로 입법예고된 대학설립기준령을 근거로 정규대 승격을 준비한다면 안암동 캠퍼스에서도 정규대승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입법에 고안해 불과하며 4월 중순경 공포될령에 근거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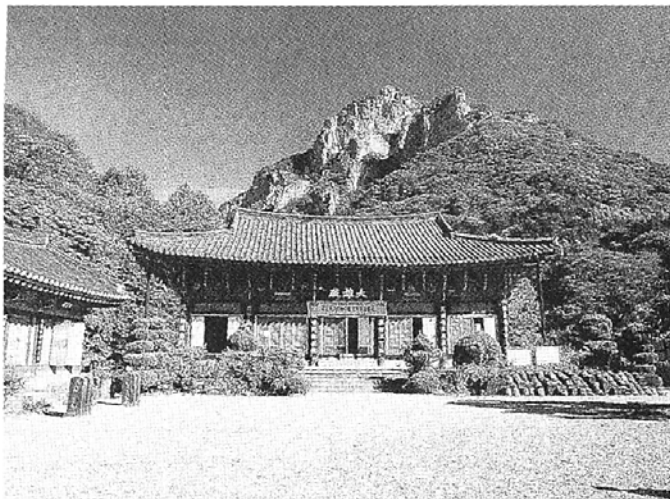
중앙승가대학의 이전부지로 김포와 안성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 스님들의 중앙승가대학 정치세력화 구도, 사리에 급급

중앙승가대학 이전불사는 승가교육의 시급성이 될 것으로 전 종도는 승가교육의 질적향상과 사회적 위상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이전불사가 한창 활기를 띠었을 때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 회원으로 가입한 많은 출가 재가자들은 반찬값을 아껴 한푼두푼 모은 돈을 발전기금으로 내놓기도 했고, 한평생 모은 돈을 기꺼이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전 종도의 동참과 기대는 아랑곳 없이 표류하고만 있는 중앙승가대학의 정규대 승격과 이전불사에 대해 한 교육관계자는

"종단과 학교당국, 이사회는 감정의 고리를 풀고 중대사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하루속히 제시하고 책임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종단 학교차원의 지원과 대안제시 뿐만 아니라 전 종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 등 지지를 모아 미래불교의 토대가 되는 교육불사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도필선 기자



백양사는 6·25때 소실된 선원·율원을 복원, 50년만에 고불총림의 맥을 잇게 됐다.

도사와 예산 수덕사가 84년 영축총림, 덕숭총림을 각각 설치했다. 영축총림은 현 조계종 종정 율하스님이 초대부지 방장으로 추대,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덕숭총림은 열반에 든 해암스님에 이어 벽초스님이 방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원담스님이 제방의 남자들을 제정하고 있다.

총림은 선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수도장으로 부처님 당시의 정사(精舍)가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총림으로 변형됐다. 특히 백장선사가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굶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는 정규를 세

종합 수행도량 활성화 자극제

율원·염불원 설치계획... 서용스님 선풍 기대

위 총림의 선농일치를 강조,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현대에 와서 총림은 선원강원 율원 염불당을 갖추어 근기에 따라 수행을 하고 있다.

총림은 '총림설치법'에 근거해 설치되며 법주사 범어사 불국사 쌍계사 등의 본사급 사찰도 총림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계종은 이번 총회에서 67년 해인사총림설치에 따라 제정된 총림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기로 결의해 총림의 난립방지와 총림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백양사 총림설치 승인으로 옛 고불총림 복원과 전 종정 서용스님의 선풍 진작운동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고불총림은 1947년 전 종정 만암스님이 일제하에서 한국불교의 선양을 위해 전라남도 10여개의 사찰을 규합, 최초 개설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선원과 율원 본사일부가 소실되어 중단되었다가 80년대부터 대대적인 불사를 단행해 이젠 복원하게 됐다.

이준엽 기자

시론

미륵보살의 향훈

전국의 중·고등학교 어디에서나 미륵보살반가상을 만날 수 있다. 학생들은 미술시간에 반가상을 보고 소묘연습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우리 민족 문화의 정수를 체득하면서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서구 문화 우선주의에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던 차였다. 이렇듯 학교에서 일기 시작한 우리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재인식 바람은 끝내 전 사회적으로도 성난 파도처럼 출렁거리게 되었다. 누구나 환희심으로 가득차 있다. 짜증스런 일상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샘솟기 시작했다.

서양석고상 왜 못버리나

하지만 이 이야기는 꿈이다. 세상은 꿈과 반대의 언덕에 있다. 미륵보살의 향훈으로 충만한 사회, 그것은 정말 꿈에 불과한 것일까. 미륵세계의 도래는 그렇다고 치자. 미술실의 데생용 석고상 가운데 '국산품'이 놓여 있을 수는 없는 것일까. 미륵세계의 도래는 너무나 엄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문제로 하지. 하지만 미술실의 석고상 가운데 우리의 것 하나쯤 '추가'시키자는 제안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까. 이론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 역시 서양 석고상 철폐주장을 외치기 시작했지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양 석고상으로 초심자들에게 묘사훈련을 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 사물이나 세상을 인식하는 태도의 밑바닥에 서양적 사고방식으로만 머물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서양 것은 최고이고 우리의 것은 불품 없다는 열등감마저 자조감을 동반시킨다. 한국사람을 모델로 놓고 그린 그림이 서양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매사가 서구 우선주의에 기인한다.

현재 미술대학 입시에서 신입생 선발 기준의 중요과목으로 석고대상이 있다. 문제는 대다수의 미술대학이 서양 석고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데 있다. 상당수의 미래 교수들도 이해한다. 서양 석고상에 의한 묘사훈련 방식의 폐해를. 그러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식민지시대부터 뿌리내린 '일체 존재'를 아직도 청산할 줄을 모른다. 현재 일본에서조차 버려진 낡은 관습이다. 아니 석고상의 본산지인 그리스 로마를 비롯 각국에서도 폐기하지 오래다. 세계에서 한국인이 서양 석고상에 필요 이상으로 매달리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전국 중·고등학교의 미술교재용으로 미륵반가상 보급을 전개하고 있다. 참신한 발상이다. 특히 서양 석고상의 폐해가 극점에 달한

오늘의 현실에서 더욱 그렇다. 하기가 반가상이라면 굳이 미술교재용으로만 한정시킬 내용도 아니다. 현대인의 각박한 일상생활 속에서 반가상같은 결작과 쉽게 만날 수 있다면 분위기가 새로워질 것이다. 보급 대상품은 국보 83호 반가상이라 한다. 이 작품은 6~7세기 동양 최고의 대표적 불교조각으로 꼽히는 걸작이다. 깊은 법열(法悅)에 빠져 사유하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커다란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세계조각사에 당당히 기재될 우리의 슬걸이다. 종교적 측면이외에 하나의 예술품으로도 결코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전국 보급사업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간파할 수 없다. 특히 타종교와의 마찰, 미술교사의 불이해, 원작의 60% 정도 축소와 FRP 재료에 의한 복제상의 기술문제 등이 염려된다.

반가상보급운동은 일종의 서구추종주의자의 자용이기도 하다. 전국의 4천5백여 중·고등학교에서 과연 몇몇나 환영하며 반가상 기증을 접수할지 의문도 든다. 또 학교 '비치품'으로 접수했다 치자. 과연 미술 담당교사의 몇%가 데생용 교육자료로 활용할지 감이 안 잡힌다. 아

마 초기에는 강한 의면 속에서 보급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사실 반가상의 조형적 특성으로 볼때 초심자의 데생용으로 애로점이 적지 않다. 원만한 곡선에 유려한 묘사는 쉽게 묘사될 수 있는 것이다. 입체적 얼굴모습으로 묘사훈련을 실시하면 '보수적' 미술교사로 하여금 불룩 반가상 소묘를 제시한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문화운동 함께 전개해야 여기에 문제가 있다. 명분 때문에 마지못해 인수해 놓은 반가상 복제품을 학교의 외진 구석에서 먼지나 쓰고 있는 초라한 존재로 만든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사전에 이와같은 불상사를 예비해야 한다. 보급운동과 병행하여 문화운동을 전개시켜야 한다. 민족문화와 불교문화의 참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사업을 꾸려야 한다. 사실 반가상 연구사업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학계의 실정이다.

반가상의 석가보살과 미륵보살문제, 특히 사유상이 왜 미륵보살인지의 문제, 삼국 가운데 제작국가의 문제, 기술상의 문제 등 숙제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부끄러움 투성이 속에 거국적 반가상 보급운동이 실시되고 있다. 종단의 새 바람을 기대해 본다. 꿈은 도전하는 자에게 더욱 아름답게 실현된다.



윤범모 (미술평론가·경원대 교수)

백양사 고불총림 설치 의미

이번 조계종 120회 총회에서 백양사 고불총림(古佛叢林) 설치에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해인사 해인총림(방장 해암), 송광사 조계총림(방장 승찬), 통도사 영축총림(방장 월하), 수덕사 덕숭총림(방장 원담)과 함께 5대 총림시대가 열리게 됐다.

현대적 총림의 시작은 1960년대 초반, 당시 국내 최고의 강원과 선원을 운영하며 종합수도도량으로서의 공식적 발족이 불가피했던 해인사가 총무원에 총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가를 요청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67년 조계종 제 115회 총회에서 총림설치 특별법을 제정 공포하고 첫 인신 가이총림을 승인해 첫 총림이 출범했다. 해인총림은 초대방장 성철스님에 이어 그암(2대),성철스님(3·4·5대)에 이어 현재 6대방장은 해암스님이다.

해인총림에 이어 69년 승보총찰 송광사도 청담스님을 총림발기위원장으로 취임, 구산스님등이 원력을 세워 조계총림을 개설했다. 당시 송광사는 8백년 전통의 선원 수선사의 맥을 살려 초대방장으로 구산스님(1대)이 추대됐다. 이어 승찬스님(3대)이 1백여 대장을 지도하고 있으며 총림으로는 유일하게 불일제제선원을 개설해 오국인 남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법보, 승보총찰에 이어 불보총찰인 통

생활 속의 불교

그것은 모두 그대 안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은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다. 시각과 끌고 없다. 마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말할 수도 없다. 안에 있다. 밖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혼허들 안에 있겠거니 하지만 두뇌 속에 있다. 거나 심장 속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모든 것을 초월한 그 무엇 - 시간도 뛰어 넘고 공간도 초월한 것, 허공 같은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언급될 뿐이다.

가르침은 모든 것이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져 있다고 말한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 우주 삼라만상도 부처님도 하늘도 천국 지옥도 다 마음이 있음으로써 언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이 곧 전지전능한 창조주요, 모든 것은 다 마음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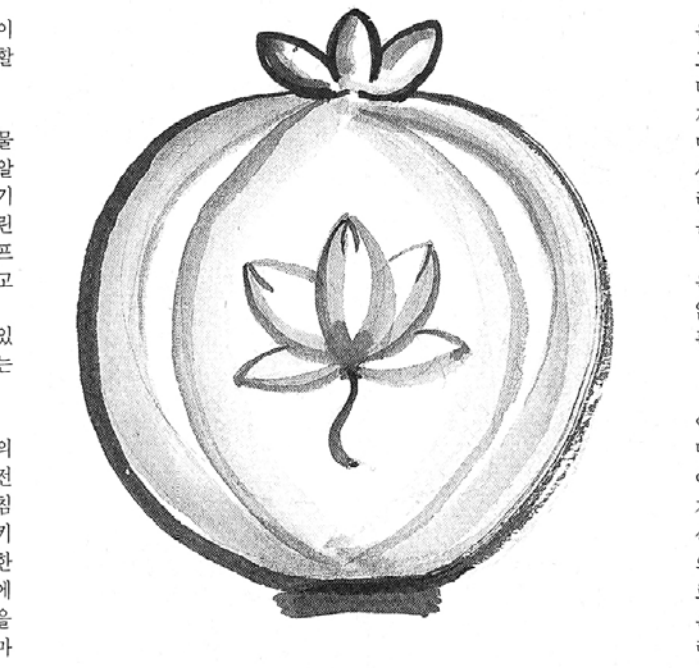
따라서 마음은 신령하기로는 한이 없고 능력은 끝을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우주가 아무리 광대무변하다 해

도 마음의 힘만 못할 것이며 저 태양이 제 아무리 밝다 해도 마음의 빛만 못할 것이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물 건너편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알고 마음을 쓴다. 주고 받고 감싸고 기우고 기우고 모으고 가라앉히고 내고 돌린다고 한다. 어느 때는 또 마음이 아프다 병 들었다 하고 벽차다, 뿌듯하다고도 한다.

형태도 없고 색깔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누구나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자재하게 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의 광대무변한 능력을 잊고 산다. 전지전능한 창조주요, 일체유심조라는 가르침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혹은 마음 먹기에 따라 무한한 힘이 있음을, 일체는 마음 바탕 위에 있고 마음 밖에 따로 언급할 게 없음을 믿지 않는다. 고쳐해야 내 마음, 네 마



음이라는 식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물고 만다. 그걸 내키는 대로 내 마음 살림이라고 스스로 한계를 짓는다. 심지어는 몸 살림 따로 마음 살림 따로라며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기도 한다. 마음을 좀더 좁은 울타리에 가둬 놓고 거기서 다시 몸과 마음을 돌로 나눈다.

그러다 보니 몸이 고장이 나면 마음은 그저 팔팔끼고 아파할 뿐 할 일이 없게 된다. 마음은 능력이자 아니라 방관자로 전락하게 된다.

마음에는 그 어떤 자력보다 큰 자력이, 그 어떤 광력보다 큰 광력이, 그 어떤 전기력보다 큰 전기력이 있다. 고로 어디에도 무엇에도 걸림이 없는 무애자재한 힘이 마음의 힘이다. 우주의 구속적 못 미치는 곳이 없고 우리 육신의 세포 하나하나에도 닿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는 곳은 없다. 마음의 통시력은 그야말로 무한대이다. 그러기에 가령 몸이 아프다 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치유의 힘은 누구랄 것도 없이 바로 그대 자신 안에 있다.

마음으로 띄운 통신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세포에 전달되었다고 하자. 국가적인 위난시에 온 국민이 총동원되어 이를 극복하듯이 내 몸의 병도 그렇게 극복될 수 있다. 그것이 마음의 힘이다. 더욱이 형상없는 말한대 해도 모든 세포는 한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요, 병의 근원 또한 다르지 않으니 이미 병과 몸이 둘이 아니며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지 않은가. 현대의학은 다만 방편일 뿐 치유는 마음의 몫이다.

가르침이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하여 마음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불멸공부의 처음이자 끝이다.

협찬: 남은지